

TV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50 채널A 특집 아름다운 동행 따뜻한기업이아기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00 채널A 아침뉴스 신문으로 보는 세상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사랑했다>	05 KBC 뉴스지금 30 모닝와이드 3부
8 40 김부장의 경제특급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MBC9사 공동기획 영인 8부 <양태정 정순자>	30 아침연속극 <나라사랑>
9 40 논설실장의 세상보기 황호택의 눈을 떠요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사랑아 사랑아> 40 여유인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50 그 여자 그 남자(재)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러브인 아시아(재)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55 바른말 고운말	10 KBS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재) 50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주말연속극 <아들 녀석들>(재)	00 SBS생활경제 40 KBC생활뉴스
12 00 뉴스현장	00 KBS 뉴스12	50 이야기쇼 두드림(재)	00 MBC 청요즘 20 우리가족 우리문화	00 SBS 12 뉴스 20 일일드라마 <가족의 탄생>
1 20 김광현의 텃밭평평	00 KBS결착선 <브레인>(재)		20 늘 푸른인생 스페셜	00 테마스페셜(재)
2 40 이연경의 세상만사	00 KBS뉴스 10 성탄특집 북콘서트 <세상을 읽다>(재)	10 시청자 기획인 공모 당선작 다류엔터티 3일 <금광리의 마지막 가을>(재)	10 고향을 부탁해(재)	00 SBS뉴스 10 건강클리닉(재)
3	20 아름다운 사람들(재) 30 100년의 가계(재)	0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30 KBS 뉴스타임 35 알뜰살뜰 종이마을(재)	00 MBC 3시 경제뉴스 10 특약 이자씨	10 인문학발전
4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필통-광주>	00 오후의 초록가방(재) 30 TV 유치원	00 엄미는 미발사 스페셜 30 아옹다옹 동화나라	00 매일일말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이그리피	00 상상지구 꾸메꾸메(재) 30 시청의 맛(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프리레이드 30 생방송 투데이 1~2부
6 00 뉴스와이드 20 심판집 관찰카메라 24시간(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20 생방송 전국시대	
7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45 일일시트콤 <패밀리>	15 일일연속극 <그대없이 못살아> 55 MBC 뉴스데스크	20 일일드라마 <가족의 탄생>
8 30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재)	25 일일연속극 <힘내요 미스터김>	5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 20 송년기획 외리인 K	50 불만제로 UP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40 날씨와 생활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40 뉴스A	00 KBS 뉴스9		55 수목미니시리즈 <보고싶다>	55 SBS 대기획 <대중수>
10	00 KBS 영상특집 2012대한민국 50 아름다운 사람들	00 수목드라마 <전우치>		
11 10 헬کم 투 시월드	00 KBS 뉴스타임 40 현장로동 동행	20 해피 투게더	15 황금어장 <무릎팍도사>	15 자기가
12 20 박종진의 쾌도난마(재) ①:30 관공 포청천 2012	30 KBS 뉴스 40 콘서트 필2 ①:30 바른말 고운말(재) 3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①:05 세상의 모든 다류	45 MBC 뉴스24 ①:05 MBC 프리타임	35 SBS 시사토론

박시후 “장 피에르 샤, 내게 꼭 맞는 캐릭터”

SBS ‘청담동 엘리스’ 짜질한 재벌남으로 인기몰이

‘장 피에르 샤’가 시청자들의 눈에 속 들어왔다. 안방극장 최고의 캐릭터라는 말도 나온다. SBS TV 주말극 ‘청담동 엘리스’에서 문제의 캐릭터를 연기 중인 박시후도 덩달아 기분이 ‘업’했다. 그는 “내 몸이 꼭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이라며 “캐릭터 연기가 너무 재미있다”며 웃었다. 장 피에르 샤는 본명이 차승조. 굴지의 백화점그룹 2세지만 사랑에 빠진다는 과정에서 아버지와도 절연한 그는 이후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혼자 힘으로 세계적인 유통회사의 한국 지사장에 오른다. 사랑에 올린 순수한 차승조는 장 피에르 샤로 개명하면서 사랑을 받지 않는 까칠한 성격으로 탈바꿈하고 조울증에도 시달린다. 그간 드라마 속 재벌남(혹은 실장남)은 까칠하거나 혼돈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면, 장 피에르 샤는 자신을 버린 여자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치졸해지고 유치해진 ‘짜질한 재벌남’이라는 점에서 신선함을 안겨준다. “처년에 캐릭터가 마음에 속 들어있어요. 장 피에르 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무조건 하겠다고 했죠. 될 해도 용서가 되는 캐릭터잖아요. 극중 대사에도 ‘미친놈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 ‘젠 원래 캐릭터가 저래’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제가 코미디와 진지함을 수시

로 오가도 시청자가 재미있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택한 여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자 복수의 화신으로 돌변한 차승조는 “복수가 최고의 힐링”이라며 활활 웃는 과묵한 캐릭터다. ‘뒤끝이 길고 ‘간혹’ 대는 게 취미이며, 프랑스 유희와 출신 ‘차도남’의 외모지만 화가 나면 충청도 사투리가 걸쭉하게 튀어나온다. 남들 앞에서 멋진 척하지만 사실은 출세하고 방정맞으며 ‘좀스러운’ 인물. 시청자가 장 피에르 샤의 캐릭터에 호응하는 같은 시간, 방송 관계자들은 박시후의 발전을 두고 ‘일취월장’이라고 입을 모은다. 2006년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부터 눈에 띄었지만 ‘완벽한 이웃을 만나는 법’ ‘일지매’ ‘가문의 영광’까지 연기는 경직된 게 사실이다. 그러다 2010년 ‘검사 프린세스’, ‘역전의 여왕’을 거쳐 ‘공주의 남자’로 연기력을 인정받았고 최근 개봉한 영화 데뷔작 ‘내가 살인범이다’에서도 감렬한 연기로 박수를 받았다. ‘장 피에르 샤’의 패션도 화제다. 한마디로 ‘귀족 패션’의 정수를 보여준다.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모든 수트가 맞출수있어요. 전담 디자이너가 제게 딱 맞는 수트를 만들어주고 원단도 최고급만을 사용하고 있어요. 액세서리 하나하나도 공을 들



<박시후>

였어요. 카프스 하나가 1400만 원이고 핀 하나가 1000만 원이에요.” 그는 최근 2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고 ‘공주의 남자’부터는 연타석으로 흥행을 치고 있었지만도 겸손함을 잊지 않았다. “일이 계속 잘 되고 있어 ‘그분’(연예계에 서 인기, 성공을 뜻하는 은어)이 오신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지금부터 정말 잘해야겠죠.” /연합뉴스

EBS		
06:00 극한 직업	<연말특집 빅미미(해정, 그리고 가족)>	14:35 순 우리말 사전 1~2
06:30 미래 직업, 또는 직업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김하진의 기본좋은 연말 모임을 위한 맛있는 제안>	14:45 영어유치원 오 기러기(재)
07:00 몬스터 수확나라	11:20 세계대미끼 <하늘의 땅 이스라엘 4부 -축복의 생명을 갈망하다>	15:10 고양이 피피
07:30 꼬마 평민 핑구	12:00 EBS 정오 뉴스	15:35 임시필러
07:45 꼬마버스 타요	12:10 TV 입학사정관	16:00 당동명 유치원 1~3(재)
08:00 당동명 유치원 1~3	12:10 TV 입학사정관	16:30 클로이의 오솔장(재)
08:30 뽀롱 뽀롱 뽀로로	12:30 초등 2년 겨울방학생활	16:45 춤추는 골 풍어(재)
08:45 춤추는 골 풍어	13:20 초등 2년 겨울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뽀롱이(재)
09:00 방귀대장 뽀롱이	13:40 초등 6년 겨울방학생활	17:10 치료의 클래식 동요(재)
09:10 치료의 클래식 동요	14:05 함께하는 한국어	17:15 꼬마버스 타요(재)
09:15 깨미		17:30 달라라 카카(재)
09:30 달라라 카카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09:45 클로이의 오솔장		18:00 생방송 특목 보너하니 1~4
10:00 부모		18:50 곤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2013 수능개념 <은주샘의 풀(Fee)통(통)수학 I>	11:40 2013 수능 길잡이 <영어독해 구분 편>	07:00 한국어능력시험대비 강좌 <중급>	15:20 한자교육 드라마 <어린이 손자병법>
00:50 수능 길잡이 <문학>	12:30 박복의 이슬로 만나는 경제	07:30 EBSe 생활영어	15:50 사이언스 드라마 <미래를 보는 소년>
01:40 고1 예비과정 <최민준의 수학>	13:00 2013 고1 예비과정 <오랜지의 영어>	08:00 9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20 초등 2년 EBS 겨울방학생활
02:30 수능길잡이 <김규호의 기하와 벡터>	14:00 2013수능개념 <포기를 모르는 세식생의 수학 II>	08:30 독학사 교육 강좌	16:40 초등 4년 EBS 겨울방학생활
03:20 " <김경현의 미적분과 통계기초>	15:00 2013 수능개념 <영어독해 유형 편>	09:10 중1 예비과정 <사화>	17:00 초등 6년 EBS 겨울방학생활
04:10 " <곽정원의 수학 II>	16:00 2013 수능개념 <회명샘의 대단한 세계사>	09:50 " <과학>	17:20 초등개념 잡기(사화)
05:00 " <이한주의 수학 II>	17:00 <이명승의 한국지리 I등급 프로젝트>	10:30 중2 예비과정 <역사상>	18:00 동물대탐험 <구리리리 탐영>
05:50 " <김명수의 적분과 통계>	18:00 2014 대비 수능 스타트 <정현건의 수학 II>	11:10 " <과학>	18:40 어린이 역사드라마 <점프>
06:40 고1 예비과정 <국어>		11:50 중3 예비과정 <사화>	19:20 숲 속 친구 피파볼라
07:30 2013 수능길잡이 <독서>		12:30 " <과학>	19:40 춤추는 골 풍어
08:20 2013 수능개념 <장인수의 물리 II>		13:10 " <수학>	20:00 영초보 중학영어
09:10 " <이희나의 화학 II>		13:50 뽀롱뽀롱 뽀로로	21:20 중학개념 끝장내기 <역사>
10:00 " <송점석의 생명과학 II>		14:30 한글이 아호	21:40 중급한국사 능력검정 시험(1~2)
10:50 " <송원희의 지구과학 II>		14:50 뽀롱뽀롱 뽀로로	22:40 중3 예비과정 <역사해>
		15:10 뽀롱뽀롱 뽀로로	23:20 EBS 드라마 스페셜 <겨울이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7일(음 11월 15일 壬戌)

子	36년생 기화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48년생 안정된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 60년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되었다. 72년생 흥이 변해 길해지니 뜻대로 되리라. 84년생 헛고생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 행운의 숫자 : 08, 72	午	42년생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느니라. 54년생 침착하게 행한 다면 오히려 빠르리라. 66년생 넉넉히 내비치는 뜻을 놓치지 말고 재빨리 간파 하라. 78년생 잘 활용한다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60, 87
丑	37년생 반기며 기뻐하게 되리라. 49년생 드나드는 이가 많아서 분주하겠다. 61년생 주장만 계속한다면 총돌하게 되어 있다. 73년생 기왕 시작했으면 끝을 보자. 85년생 적극적으로 임하다 보면 자신감을 회복하리라. 행운의 숫자 : 41, 84	未	43년생 태세에 따르는 것이 백번 낫다. 55년생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67년생 민첩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고생해 놓고 남 좋은 일만 시킨다. 79년생 배려까지 잘 살펴보고 판단해야 착오가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66, 90
寅	38년생 내키지 않으면 재빨리 변경하는 것이 낫다. 50년생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니라. 62년생 넘겨졌었다가는 큰코다칠 수가 있다. 74년생 단순한 호기심이라면 도음이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15, 49	申	44년생 의식과 생활 방식에 있어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56년생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다. 68년생 의외로 빨리 처리되는 모습이니라. 80년생 주변에서 부추기는 이의 말 장단에 휘둘린다면 곤란하다. 행운의 숫자 : 22, 95
卯	39년생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 생기느니라. 51년생 막연한 자존심을 버려야 현실과 타협할 수 있다. 63년생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75년생 생방으로부터 찬사를 받으리라. 행운의 숫자 : 53, 79	酉	45년생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57년생 과거사에 집조가 보이니 세심하게 돌이켜 보라. 69년생 투명하게 밝히고 인정하면 빨리 봉합될 수 있다. 81년생 전방위적으로 살피지 않으면 허점이 보일 수다. 행운의 숫자 : 80, 29
辰	40년생 긴히 도와줘야 할 단계에 와 있다. 52년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이루어지는 법이다. 64년생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76년생 부담스럽다면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92, 21	戌	46년생 빨리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다. 58년생 설마 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리라. 70년생 지나친 낙관과 자세는 허황될 뿐이다. 82년생 근본적인 것을 잘 살펴다 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4, 48
巳	41년생 핵심을 파악하지 않으면 슬모가 없다. 53년생 학습고대하던 일이 꼭 이루어지리라. 65년생 상대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77년생 너무 오래 되어 아무런 슬모가 없게 되었다. 행운의 숫자 : 33, 65	亥	47년생 넓고 큰마음이야 많은 것을 아우를 수 있다. 59년생 깨도 수정을 해야 할 시기이니라. 71년생 막힌 곳이 있어서 매우 답답하게 보인다. 83년생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니 잘 배우하도록 하라. 행운의 숫자 : 30, 4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일!” ☎010-9790-8237

굿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니하오 쑹구위	오하오우 니혼고
fool and his money are soon parted 명청한 사람에게 돈이 남아나질 않는 법이야	指鹿爲馬(지록위마) 가리킬 지, 사슴 록, 하랄 위, 말 마	十指連心 shí zhǐ lián xīn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彼女に振られたことがありますか。 그녀에게 차인 적이 있습니까
A : Did you hear what happened to Mr. Che? B : No. A : He invested 50,000,000 won in land, and it proved worthless. B : A fool and his money are soon parted. A : 미스터 최에 대해 소식을 들었니? B : 아니. A : 땅에다 5000만원을 투자했다는데, 아무런 슬모도 없는 것이었네. B : 명청한 녀석에게는 돈이 남아나질 않는 법이야. * what happened to ~? = 무슨 일이 일어났어? * invest : 투자하다 * worthless : 쓸모없는	지록위마(指鹿爲馬)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위사람을 농락하고 권세를 함부로 부리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진시황이 죽자, 환관 조고(趙高)는 태자 부소(扶蘇)를 죽이고 어린 호해(胡亥)를 황제로 삼았다. 조고는 호해를 이용하여 경쟁 관계에 있던 신하들을 죽이고 승상의 자리에 올라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러자 역심이 생긴 조고는 자기를 반대하는 중신들을 제거하기 위해 피를 내어 어린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말하였다. "폐하, 말을 바치겠으니 거두어 주십시오" 호해가 "승상은 농담도 잘하시오,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 하더니 그대를 눈에도 말로 보이오?"하고 웃으며 좌우의 신하들을 둘러보자, 긍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조고는 부정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죄를 씌 죽였다. 그 후 조고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출전) 『사기(史記)』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	열(十) 손가락(指)이 마음(心)으로 연결(連)되어 있다. '十指連心 -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의 중국식 표현입니다. 못난 자식은 못난 대로 잘 난 자식은 잘 난대로 다들 그 부모에게 귀한 자식이고 소중한 존재들이지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열손가락에 비유해 자식에 대한 분별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관념은 지역을 초월하지만, 요즘 중국은 정책적으로 하나만을 놓고, 우린 사회문화적으로 하나를 낳는 시대이다 보니 자식 수에 비유하기엔 손가락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네요.	A : 彼女に振られたことがありますか。 B : 振ったり振られたりしてきましたよ。 A : あの時は別れてお酒ばかり飲んでいましたね。 B : 恋の辛さを味わってから大人になりますよ。 A : 그녀에게 차인 적이 있습니까. B : 차기도하고 차이기도 하면서 왔어요. A : 그때는 헤어져서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B : 사랑의 쓴맛을 맛 보고나서 어른이 되지요. 彼女に振られる 그녀에게 차이다 お酒ばかり飲む 술만 마시다 辛さを味わう 쓴맛을 맛보다
<칼란스쿨·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아스카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 http://www.kjasuka.co.kr ☎ 232-1503